

KIA 김도영, 첫 시범경기서도 펄펄 날았다

2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 맹활약
선발 임기영 2이닝 무실점 기록
최지민·김기훈 등 불펜 와르르
KIA, 한화에 1-6 역전패 당해

TIGERS '제2의 이종범' 김도영(사진)이 2023 KBO 시범경기 개막전에서도 맹타를 휘두르며 새 시즌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도영은 13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에서 4타수 2안타(1홈런) 1득점 1타점으로 활약했다. 이날 1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1회초 첫 타석부터 자신감있는 배팅을 휘두르며 한화 선발 페냐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홈런포를 터뜨렸다. 1-0으로 앞선 3회초 두 번째 타석에서

도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김선빈 타석 때 2루 도루도 성공했다. 김도영은 1-4로 역전된 5회초 세 번째 타석과 1-6으로 벌어진 8회초 네 번째 타석에서 각각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이날 KIA 타선에서 유일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김종국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김도영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도 5경기에 모두 리드오프로 선발 출전해 뜨거운 타격감을 선보였다. 김도영은 첫 실전 경기인 지난달 2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키노베테라스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과 연습경기에서 5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타격감을 조율했다. 일본 오기나와에서 열린 4차례의 연습경기에서는 16타수 6안타(타율 0.375) 2타점 4득점 2도루로 펄펄 날았다.

캠프 연습경기에서의 좋은 타격감이 시범경기 개막전에도 이어졌지만 수비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3회말부터 유격수로 자리를 옮긴 김도영은 5회말 2사 1루 상황에서 최재훈의 땅볼 타구를 기다리면서 백핸드로 포구하려다 놓치면서 득점권 위기를 자초했다. 다행히 후속타자 박정현의 땅볼 타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실점을 허용하진 않았다. 김도영은 올시즌 KIA의 키플레이어로 꼽히고 있다. 김도영의 활약 여부가 KIA의 성적에 이어진다는 게 코칭스태프의 판단이다. 김종국 감독은 지난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자체 연습경기에서 "김도영은 캠프에서 준비를 너무 잘해 야수 쪽에서 키플레이어로 생각하고 있다. 올시즌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다"고 말했다.

김도영도 올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는 자신 있고 공수 모두 안정감이 생겼다"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잘 되고 있어서 아주 긍정적이다.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도영의 활약에도 KIA는 이날 투수진 난조로 한화에 1-6 역전패를 당하면서 시범경기를 아쉽게 출발했다. 선발로 나선 임기영은 2이닝 동안 2피안타 3볼넷 무실점을 기록했으나 이어진 불펜진이 난조를 보였다. 3회말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김승현은 1이닝 2피안타 1볼넷 3실점(2자책)으로 부진했다. 최지민도 2이닝 2피안타로 1실점을 내줬고 김기훈도 2이닝 2피안타(1피홈런) 2실점했다. 8회말 마운드에 오른 박도규는 1이닝을 삼자범퇴로 정리하며 호투를 펼쳤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한규민 기자**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이 13일(한국시간) 독일 뮐하임에서 열린 아마구치 아카네(일본)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300 독일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을 치르고 있다. **신화/뉴스**

클린스만호, 첫 평가전 명단 발표... 월드컵 멤버 주축 첫 소집

손흥민·이강인 등 해외파 포함
FW 오현규·DF 이기제 합류
20일 소집 후 A매치 2연전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했던 한국 축구대표팀 대부분이 워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의 첫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3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소집 명단 26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파울루 벤투 감독의 후임으로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해 지난 카타르월드컵에 나섰던 선수들을 대부분 선발했다.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나폴리), 이강인(마요르카), 황희찬(울버햄튼) 등 유럽파와 황의조(서울), 조규성(전북), 김영권(울산) 등 국내파 등 2022 카타르 월드컵 멤버 26명 중 24명이 이름을 올렸

다.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명단과 비교해 두 명이 바뀌었다. 부상 중인 윤종규(서울), 홍철(대구)이 빠지고 카타르월드컵에 27번째 예비 선수로 참가했던 공격수 오현규(셀틱)와 수비수 이기제(수원)가 뽑혔다. 최전방 공격수 오현규는 월드컵 직전인 지난해 11월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 출전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그는 당시 안와골절상으로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했던 손흥민의 대체 선수로 카타르 현지에서 동행했으나, 손흥민이 정상적으로 출전하면서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했다. 원발잡이 측면 수비수 이기제는 2021년 6월 열린 카타르월드컵 2차예선 투르크메니스탄과 스리랑카전에 출전하 바 있다. 대표팀은 오는 20일 파주국가대표트레

닝센터(NFC)에서 소집돼 24일 콜롬비아(울산문수축구경기장), 28일 우루과이(서울월드컵경기장)와 A매치 2연전을 치른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콜롬비아는 17위, 우루과이는 16위로 한국(25위)보다 높다. 역대 전적에서 콜롬비아에는 4승2무1패로 앞서지만, 우루과이에는 1승2무6패로 열세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9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코치진(안드레아스 헤어초크, 파울루 스트링가라, 안드레아스 쿠프레, 김영민, 베르너 로이타드)과 기술자문(차두리)을 확정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파인 차두리 기술자문과 지난 12일 FC서울과 울산 현대의 프로축구 K리그 경기를 관전하며 대표팀 감독으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동환 기자**

'셔틀콕 간판' 안세영, 독일오픈 준우승

천적 아마구치에 0-2 패
남녀 복식은 나란히 금

광주체고 출신의 '한국 여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간판' 안세영(21)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300 독일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랭킹 2위 안세영은 13일(한국시간) 독일 뮐하임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아마구치 아카네(일본)에게 0-2(11-21 14-21)로 졌다. 안세영은 이날 패배로 인도 오픈,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 이어 3개 국제대회 연속 우승에 실패했다. 또 아마구치와의 상대 전적에서 6승12패가 됐고, 올해 들어서도 1승2패로 밀렸다. 안세영은 새해 첫 대회인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서 아마구치에 1-2로 져 우승을 내줬다. 일주일 뒤 치러진 인도 오픈 결승에선 2-1로 승리하며 설욕에 성공했다. 하지만 세 번째 맞대결인 독일 오픈 결승

에선 아마구치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안세영은 1세트 중반까지 접전을 펼쳤지만 8-10에서 아마구치에게 연속 10점을 내주며 무너졌다. 2세트에선 7-4로 앞서 나갔으나 내리 6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한 이후 추격에 실패했다. 한국 남녀 복식은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세계 32위 백하나(MG새마을금고)-이소희(인천국제공항) 조는 같은날 여자 복식 결승에서 세계 2위 마쓰야마 나미사다 지하루(일본) 조를 2-0(21-19 21-15)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한국 선수 간 맞대결로 펼쳐진 남자 복식 결승에선 최솔규(국군체육부대)-김원호(삼성생명) 조가 서승재(국군체육부대)-강민혁(삼성생명) 조를 2-1(21-19 18-21 21-19)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혼합 복식에 나선 김원호-정나은(화순군청) 조는 결승에서 평엔저-황동평(중국) 조에 0-2(4-21 15-21)로 져 준우승했다. **최동환 기자**

호남 최초 민영 파크골프장, 담양 창평에 개장

광주연맹 전용 '창평파크골프장' 개장 기념 동호인 친선대회 개최

호남 지역 최초의 민영 파크골프장이 담양 창평에 개장했다. 13일 대한파크골프연맹 광주시연맹(이하 광주시파크골프연맹)에 따르면 담양 창평면 유곡리에 연맹 전용인 '창평파크골프장'을 신설, 지난 1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6개월여만에 문을 연 창평파크골프장은 1만 8600㎡ 부지에 1차로 9홀을 개장했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첫 번째 민영 파크골프장인 창평파크골프장은 올 여름 9홀을 늘려 정규 18홀을 조성, 각종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호남

지역에도 많은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설을 만들어 관리,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파크골프연맹은 전용 파크골프장 개장 기념으로 지난 11일 창평파크골프장에서 한국파크골프교육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전북도파크골프연맹과 화순 영벽파크골프클럽 등 광주와 전남, 전북 파크골프 동호인 82명이 참가한 가운데 친선대회를 개최했다. 친선대회는 예선 9홀과 결선 9홀 등 18홀 경기로 치러져 김유진(화순)씨가 48타로 우승, 오명철(광주)씨가 50타로 준우승, 신정삼(화순)씨가 52타로 3위를 차지했다. 또 박태영·신정삼·이성민·이정희·전성문·차미경씨 6명이 홀인원을, 이석용씨가 엘버트로스를 각각 기록해 특별상을 받았다. **최동환 기자**